

## 민요의 분류와 토리의 개념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28~29쪽
제재명	민요의 토리	지도서	286~287쪽

### 1. 민요의 분류

#### (1) 전파 정도 및 세련도에 따른 분류

민요는 크게 향토(토속) 민요와 통속 민요로 분류할 수 있다. 향토 민요는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는 것으로, 그 사설이나 가락이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상엿소리, 김매기, 모심는 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통속 민요는 전국적으로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하여 불리는 세련되고 널리 전파된 민요를 의미하며 요즘 알려진 민요의 대부분은 통속 민요에 속한다.

#### (2) 기능 및 내용에 따른 분류

민요는 어떤 기능과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 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지역권에 따른 분류

민요를 크게 경기, 남도, 서도, 동부, 제주의 지역권으로 분류하고 관련 지역의 민요를 범주화한 것이다.

- 경기 민요: 경기도, 충청도 일부 등
- 남도 민요: 전라도, 충청도 일부 등
- 서도 민요: 평안도, 황해도 등
- 동부 민요: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등
- 제주 민요: 제주도

#### (4) 토리별 분류

기존의 지역권에 따른 민요의 분류 방법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 즉, 같은 지역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음악 어법으로 된 음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리는 지역뿐 아니라 음악 안에서 보이는 구성음, 종지음, 주요음, 시김새 등의 음악적 특징이 토리를 구분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경토리,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 등을 들 수 있다.

### 2. 토리의 개념

지역성이 가미된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음악 어법을 지칭하는 용어 또는 어떤 지방의 대표적인 음악 어법을 말한다. 특히 민속 음악에 있어서 각 지방의 특징 있는 기본 음악 표현 양식을 일컫는다. 전라도의 민속 음악은 육자배기토리로 되었든지, 평안도의 무기는 수심가토리로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말의 용례이다. 대개는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를 중심으로 표현하는데, 경토리(창부타령토리)는 주로 경기와 서울 지방의 민속 음악에 나타나며, 육자배기토리는 전라도, 수심가 토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메나리토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의 민속 음악에 나타난다. 토리의 다른 말로는 ‘조(調)’가 있다. 따라서 육자배기토리를 육자배기조라고도 한다. ‘토리’나 ‘조’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 말에는 선율 측면의 선법적 개념과 표현하는 소리의 성음상 측면의 창법적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육자 배기와 같은 선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육자배기를 부르는 특징 있는 창법으로 부른다.’는 뜻이다.

출처 변미혜 외, “국악용어사전”, 민속원, 2012, 91쪽.

## 토리의 종류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28~29쪽
제재명	민요의 토리	지도서	286~287쪽

### 1. 수심가토리

황해도, 평안도 등의 관서 지방 음악에서는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가 대표적이다. 이들 선법은 반음이 없는 5음 음계로, 끝나는 음이 아래에 있고, 그 음에서 5도 위의 음을 떠는 것이 특징이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심가토리는 ‘레-미-솔-라-도’의 구성으로 ‘레’가 끝나는 음이며, ‘라’를 떠다. 반면에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난봉가토리는 ‘라-도-레-미-솔’의 구성으로 ‘라’가 끝나는 음이며 ‘미’를 떠다.

수심가, 산염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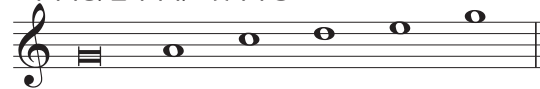
난봉가, 몽금포타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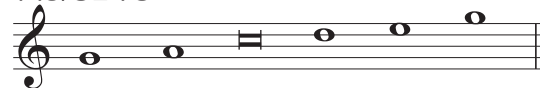
### 2. 경토리

서울·경기 지방의 음악은 주로 5음 음계로 되어 있으며, 선율 진행은 순차 진행이 많아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경기 민요는 거의 ‘도라지타령’과 같이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이며 제일 낮은음과 끝나는 음이 모두 ‘솔’인 평조이다. 반면에 널리 알려진 신민요인 ‘아리랑’은 그 구성음이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제일 낮은음도 ‘솔’이지만, ‘도’로 끝나는 ‘도 선법’이다. ‘천안 삼거리’나 ‘경북궁타령’은 ‘라-도-레-미-솔’의 5음 음계로, ‘라’로 끝나는 계면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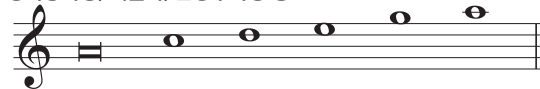
도라지타령, 날리리아, 노랫가락 등



아리랑, 풍년가 등



경북궁타령, 베틀가, 한강수타령 등



### 3. 메나리토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지역의 음악을 말한다. 이 선법은 상행 시에는 4음 음계, 하행 시에는 5음 음계로 된 무반음 음계로, ‘미-(솔)-라-도-레-미’로 구성되는데, ‘미’가 가장 낮은음이고, ‘라’로 끝나는 계면조이다. 이와 같은 선법은 함경도 지방의 음악에서도 발견되며, 충청도나 경기도에서도 간혹 쓰이고 있다. 특히 불교 음악이나 글 읽는 소리에 자주 나타난다. 강원도와 경상도 민요에서는 ‘라-솔-미’의 하행 선율에서 이 선법의 특징이 드러난다.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등



### 4. 육자배기토리

현재 전라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선법이다. ‘미-라-도-레-미’로 구성된 음계인데 ‘도-시’의 반음이 꺾는소리로 쓰이는 게 이 선법의 특징이다. ‘미’는 굽게 떨고, ‘라’가 본청인 계면조이다. 대표적인 민요로는 ‘육자배기’, ‘흥타령’, ‘진도 아리랑’, ‘농부가’ 등이 있다.

진도 아리랑, 농부가 등



출처 국립국악원 > 국악사전

## ‘닐리리야’ 관련 자료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0~31쪽
제재명	닐리리야	지도서	288~289쪽

## 1. 닐리리야

‘닐리리야’는 ‘닐리리야’, ‘닐니리야’, ‘릴리리야’, ‘릴리리’ 등으로도 불린다. 곡명은 후렴의 ‘닐리리야’에서 붙여졌다. 유래는 서울 지방 무당의 소리인 ‘창부타령’이 전문 가창 집단에 의해 세속화된 것이라는 설이 있고, ‘아리랑’처럼 일제 강점기 민중의 비애와 분노를 담은 신민요라는 설이 있다. 게다가 전해 오는 가락에 노랫말만 지어 부른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작곡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노랫말은 입을 그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형적인 경기 민요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약간 빠른 굿거리장단으로 부른다.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의 길이가 동일하다. 선율도 앞부분만 다를 뿐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의 선율이 거의 같다. 굿거리장단 세 개의 길이로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가 구성된다. 선율은 ‘솔, 라, 도, 레, 미’ 5음 음계의 솔 선법(평조)으로 되어 있으며, ‘솔’로 종지한다. 높은음으로 시작해 점차 중간 음역으로 진행한 뒤 ‘레, 도, 라, 솔’의 순차 진행으로 종지하는 짜임새 역시 받는소리와 원절에 나타난다. 원절의 사설이 슬픈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받는소리는 경쾌한 구음으로 흥청거리며 서로 대조를 이룬다. 굿거리장단으로 노래 부르는 여느 민요와 달리 받는소리와 원절이 모두 굿거리장단 세 개로 단락을 이룬다. 원절의 사설은 입에 대한 상사의 정, 서민적 삶의 애환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후일에 세월의 무상함, 늙음에 대한 한탄을 노래 부르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굿거리장단의 흥겨운 가락이 후렴의 입타령과 조화를 이루며, 높은음에서 시작하여 낮은음으로 진행되는 선율의 구조가 특징적이다. 사설에 담긴 서민들의 애환이나 세월의 무상함 등 노래 내용에 비해 선율이 경쾌하여 사설 내용과 선율의 대비가 극적이다.

## 〈받는소리〉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 닐 닐리리 닐리리야

## 〈메기는소리〉

1. 청사초롱 불 밝혀라 /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2. 일구월심 그리던 입 / 어느 시절에 다시 만나 볼까
3. 어제 청춘 오늘 백발 / 가는 세월을 어이 하리
4. 내 딸 죽은 내 사위야 / 울리고 갈 길을 왜 왔던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2. 경토리의 특징

경토리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일부 지방 민요와 무가(巫歌)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선법으로, ‘솔, 라, 도, 레, 미’로 구성되며, 마침음은 ‘솔’이나 ‘도’이다. 세마치장단 또는 굿거리장단이 주로 쓰이는데, 부드럽고 유장한 음색과 빠른 장단을 써서 맑고 경쾌하며, 서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창부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닐리리야’, ‘도라지타령’ 등이 이에 속한다.

## 소금의 연주 자세와 주법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4~35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 ❶	지도서	292~293쪽

## 1. 소금

소금(小筭)은 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악기로, “삼국사기”, “고려사”, “악학궤범”에 나타나 있다. “삼국사기 악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악에 사용된 삼죽에 첫째 대금, 둘째 중금, 셋째 소금이 있다.” 또한 “삼죽 역시 적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향삼죽은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대금의 곡으로 324곡, 중금의 곡으로 145곡, 소금의 곡으로 289곡이 전한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대금, 중금, 소금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죽이나 쌍골죽으로 만들며 제작법은 기본적으로 대금과 같다. 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지녔으며 대금의 한 옥타브 위의 음을 연주한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열두 음을 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일곱 음을 위주로 연주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대 창작 음악에서 고음역의 맑은 음색을 지닌 소금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전통 음악에서는 주로 합주에 많이 쓰인다.

<소금 전체 음역대>



<소금 주요 음>



## 2. 소금의 연주 자세와 주법

- 어깨의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편 후 약기와 얼굴을 45도 정도 왼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때 취구에 입김을 넣기 위해 고개는 자연스럽게 약간 숙여진다.
- 왼손은 손목을 꺾어 손가락이 사선 방향으로 지공을 막도록 한다.
- 오른손은 약기와 거의 직각이 되도록 편한 자세로 지공을 막는다.



▲ 소금 입 모양(정면)



▲ 소금 입 모양(측면)



### ▲ 손 자세

출처 서승미, “국악 실기교육의 이해”, 음악세계, 2017. 24~25쪽.

## 소금 오름길 ① 연습곡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4~35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 ①	지도서	292~293쪽

### ■ 소금 오름길 ① 연습곡

潢	청황	潢	청황	潢	청황
汰	청태				
潢	청황	潢	청황		
沖	청중	沖	청중	沖	청중
		沖	청중		
湫	청고	湫	청고	湫	청고
沖	청중				
湫	청고	湫	청고		
汰	청태	汰	청태	汰	청태

소금 오름길 ① 연습곡 6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沖	청중	湫	청고	汰	청태	潢	청황

소금 오름길 ① 연습곡 5



## 단소 악곡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4~35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 ❶	지도서	292~293쪽

### ■ 김장하는 날

汰	청태	無	무	潢	청황	潢	청황	汰	청태	仲	중
汰	청태	無	무	沖	청중	汰	청태	汰	청태	無	무
汰	청태	無	무			沖	청중	汰	청태	無	무
汰	청태			沖	청중			汰	청태	無	무
		無	무								
潢	청황	林	임	淋	청임	淋	청임	潢	청황	無	무
無	무	仲	중	沖	청중	沖	청중	無	무	無	무
林	임	無	무	汰	청태	汰	청태	林	임	潢	청황
無	무	無	무	潢	청황	潢	청황	無	무	無	무

김장하는 날

汰	청태	汰	청태	無	무	潢	청황	無	무	無	무
		汰	청태								
汰	청태	汰	청태	無	무	汰	청태	無	무		
汰	청태	汰	청태			汰	청태			無	무
				潢	청황	汰	청태	潢	청황		
汰	청태	汰	청태	無	무			無	무	無	무
潢	청황	潢	청황	林	임	潢	청황	林	임	林	임
無	무	無	무	仲	중	無	무	仲	중	仲	중
林	임	林	임	無	무	林	임	無	무	無	무
仲	중	仲	중	無	무	仲	중	無	무	無	무

자진모리장단  
김민하 작사 — 작곡

※ 소금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단소 수업 대체 악곡으로 활용하세요.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8~39쪽
제재명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	지도서	296~297쪽

### 1. 그린슬리브스(Green Sleeves; 푸른 옷소매)

조금 느리게 영국 민요

A - las, my love, — you do me wrong — To cast me off — dis - cour - teous - ly, for  
I have lov - ed you so long — De - light — ing in — your com - pa - ny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국의 옛 민요로,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애창되고 있다. 문호 셰익스피어도 희극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속에 이 노래를 사용하였고, 영국의 현대 음악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는 이 멜로디를 사용하여 ‘그린슬리브스에 의한 환상곡’을 작곡한 바 있다. 원곡은 느린 박자의 우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푸른 옷소매의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노랫말을 담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변정인, “이야기 팝송 여행”, 삼호출판사, 1995.)

### 2. 아름다운 엠멘탈

보통 빠르게 역사자 미상 | 스위스 민요

아 름 답 고 즐 - 거 운 나 의 고 향 엠 멘 탈 반 짝  
이 는 산 - 마 루 은 빛 으 로 덮 인 곳

알프스 지방의 민요인 요들송의 특징과 창법이 잘 나타난 곡으로, 스위스의 대표적인 요들송 중 하나이다. 요들송은 낮은 흥성(가슴소리)과 가성(팔세토)이 자주 또는 빨리 교체되는 발성 기법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요들송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험준한 산악 지방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통신 수단과 신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설과 목동들이 흩어진 동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설 등이 있다.



### 3. 카로부시카(Коробушка)

조금 빠르게

러시아 민요



오 나 의 멋 진 - 마 차 달 리 네 비 단 가 득 실 고 서

사 랑 하 는 - 나 의 사 람 - 기 다 리 는 그 곳 에

15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노래이며 춤곡이다. ‘카로부시카’는 떠돌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각종 물건을 담던 수레를 말한다. 시골 상인이 천과 직물을 팔러 다니다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 첫눈에 반해 팔러 온 물건을 그녀에게 바치며 구애하는 내용이다.

### 4. 모리화

보통 빠르게

중국 민요



한 송 이 아 립 다 운 모 리 - 화 한 송 이 아 립 다 운 모 리 - 화

가 지 마 다 - 념 치 는 그 읍 한 향 기 의 하 얀 - 꽃

‘모리화’는 재스민꽃·말리꽃을 말하는 것으로, 하얀 재스민꽃이 핀 차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중국 민요이다. 오페라 “투란도트”에 이 노래의 가락이 삽입되었다.

## 5. 봉가완 솔로(Bengawan Solo; 솔로강가에서)

보통 빠르게

인도네시아 민요



인도네시아어로 ‘봉가완 솔로’라고 하는 솔로(Solo)강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를 550km 가로질러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자바섬에서는 가장 긴 강이며 옛 상인들이 항상 이용했던 강이다. 이 곡은 인도네시아의 항구에서 태어난 대중음악의 종류인 ‘크론충’의 대표 곡으로 음악 소리가 ‘크롱크롱’이라고 들리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1940년 인도네시아 작곡가인 그상 마르토히르토노(Gesang Martohartono)가 작곡했으며 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본국에 이 곡을 퍼뜨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에 삽입되어 유명해졌다.

출처 EBS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방송 중 ‘신들의 섬’ 발리로 떠나는 흥겨운 음악 여행, 2014.

## 6. 음부베(M Bube; 사자)

조금 빠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출신의 음악가 솔로몬 린다(Solomon Linda)가 작곡한 곡으로, 영화 “라이온 킹”의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의 원곡이다. ‘M Bube’는 줄루어로 ‘사자’라는 뜻으로 린다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선율이다. 노을이 질 무렵 한 마리의 사자가 다가오더니 양 떼 주변을 맴돌았고 종일 굶어 헛헛했던 그는 사자가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져 ‘사자’라는 뜻의 줄루어 ‘음부베’와 ‘가만히 있어’라는 뜻의 ‘짐바’라는 두 개 단어로 노래를 만들었다. 후에 6인조 아 카펠라 그룹 ‘The Evening Birds’를 결성해 요하네스버그 술집 순회공연으로 연명하던 린다는 1938년 ‘음부베’를 음반으로 제작했다. 당시로는 기록적인 1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이 선율은 세계 음악가들에게 알려졌고 1950년대에는 각종 노랫말을 붙인 버전이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 저작권의 개념조차 몰랐던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2000년, 이 같은 소식이 미국 음악 잡지에 실리면서 린다의 후손들이 긴 법정 공방 끝에 뒤늦게 법적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

출처 김신영, 한국일보 기사, 2006년 3월 23일.

## 7. 포 카레카레 아나(Pokarekare Ana; 영원한 밤의 우정)

조금 느리게

뉴질랜드 민요



우리나라에는 ‘연가’로 잘 알려진 이 노래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에 전파되었다. 마오리어로 ‘포 카레카레 아나’는 ‘영원한 밤의 우정’이라는 뜻으로, 로토루아 호수 중앙에 있는 모코이아라는 무인도에서 투타네카이라는 여인은 반대 부족의 귀족 청년 히네모아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마오리족 출신의 뉴질랜드 국민 가수 키리 테 카나와(Kiri Te Kanawa)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출처 김중식(오클랜드 무역관장), 동아일보 기사, 1998년 2월 18일.

## 8. 클레멘타인

보통 빠르게

미국 민요



1849년 금광을 찾아 일확천금을 꿈꾸며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몰려 왔던 포티나이너(forty-niner)들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포티나이너들은 영양실조와 인디언의 습격 등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자신들이 캐낸 황금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본가들의 배만 불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허탈감에 빠져 ‘동굴과 계곡에서 금맥을 찾던 한 포티나이너에게 클레멘타인이라는 딸이 있었지...’라는 자조 섞인 노래를 부르게 된 이후 널리 퍼져 나갔다.

출처 두산백과

## 9. 라 쿠카라차(La cucaracha; 바퀴벌레)

보통 빠르게

멕시코 민요



원래 15세기 말 무슬림들을 축출할 때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스페인 민요이지만,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침략과 함께 멕시코에 전래되어 수 세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 버전이 생겨났다.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라 쿠카라차’는 멕시코 혁명 당시 농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가 원곡이며, 내용은 카란사와 이에 대항하는 농민 혁명군 판초비야와 사바타의 관계에 대한 해학과 풍자를 담고 있어 농민 혁명군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다. 농민의 끈질긴 생명력을 아무리 죽여도 나타나는 바퀴벌레에 비유하여 불인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김유석, “뜻밖의 세계사” 중 ‘라 쿠카라차’와 멕시코 혁명, 2013.)

## 10.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 철새는 날아가고)

조금 느리게

페루 민요



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 Garfunkel)이 노래 부른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인디오들 사이에 전해 오던 노래로 잉카 문명 몰락의 서글픈 전설이 담겨 있다. 18세기 중엽 잉카의 마지막 왕이었던 투팍 아마루의 후손인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Jose Gabriel Condorcanqui)라는 인물은 스페인의 포악한 식민 통치에 대해 무력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스페인 군대에 붙잡혀 지독한 고문과 함께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는 죽은 그가 안데스를 상징하는 새인 콘도르로 환생해 안데스 창공을 날아다니며 인디오를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안데스의 노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황윤기, “서글픈 바람의 노래-안데스 음악”, 월드 뮤직, 2013.)

## 세계의 민속 악기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8~39쪽
제재명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	지도서	296~2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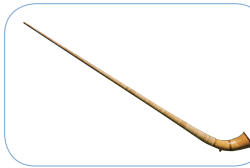
### 1. 백파이프



가죽으로 만든 공기주머니와 몇 개의 리드가 달린 관으로 된 기명 악기이다. 입이나 풀무로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불어 넣어 그것을 밀어냄으로써 주머니에 달린 관을 울리게 해 소리를 낸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 유럽 전역에서 옛날부터 민족 악기로 사용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도 군악용 악기로서 유명하며 영국 민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술 음악에서도 전원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백파이프 연주를 흥내 내는 일이 많다.

출처 두산백과

### 2. 알펜호른



스위스·오스트리아의 알프스산 목장에서 쓰이는 나무나 나무껍질을 감은 긴 나팔 모양의 악기이다. 길이는 40cm에서 4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며, 지공이나 키 등은 없다. 짧은 것은 목장에서 신호용으로 쓰며, 긴 것은 자연 배음이 풍부하므로 장음계의 선율을 연주할 수 있다. 2~3개를 나란히 놓고 아름다운 화음의 선율을 즐긴다.

출처 두산백과

### 3. 발랄라이카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 악기로, 세 줄의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삼각형 몸통의 발현 악기이다. 고대와 중세 시대 악기 중에도 발랄라이카와 유사한 악기들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발랄라이카나 발랄라이카족 악기들은 19세기에 표준화되었고, 20세기에 이르러 영화 음악과 순회공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출처 악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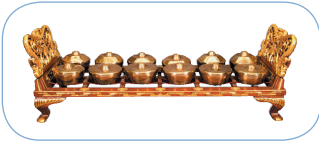
### 4. 얼후



호금(胡琴:일명 호궁(胡弓))의 일종으로 중국어로 얼후(二胡)라고 한다. 몸체(지름 9~10cm)는 대 또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모양은 둥근 것, 6각·8각으로 된 것 등이 있다. 여기에 뱀 가죽을 씌우고 길이 80cm 정도의 자루를 달아 그 자루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두 가닥 쳤다. 말꼬리로 만든 활을 그 줄 사이에 끼워 줄을 긋는다. 왼손 엄지로 자루를 쥐고 집게손가락·가운뎃손가락·약손가락으로 현을 누른다.

출처 두산백과

## 5. 보낭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합주 음악에 쓰이는 선율 타악기이다. 나무틀에 청동으로 만든 지름 20cm, 높이 15cm 내외의 솥 모양의 공(gong) 10여 개를 한 줄이나 두 줄로 늘어놓고, 동그랗게 돌출한 부분을 양손에 든 북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출처 두산백과

## 6. 켄베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악기 중 하나이다. 음악에서 퍼커션(Percussion)으로 많이 쓰이는 켄베는 크게 헤드와 울림통, 조임줄로 이루어져 있다. 헤드를 손으로 두드리면 공기의 떨림이 울림통을 통해 울리면서 소리가 퍼지는 역할을 한다.

## 7. 코아우우



나무, 돌, 동물의 뼈 등으로 만드는 15cm 정도의 관악기로 마오리족의 악기이며, 사선으로 놓고 연주한다.

출처 위키백과

## 8. 밴조



밴조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 발현 악기이다. 17세기 초 노예로 끌려온 서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한 이 악기는 18세기와 19세기에 미국의 흑인들이 주로 연주하는 악기로 인식되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밴조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다.

출처 악기백과

## 9. 삼포냐



스페인어인 삼포냐는 케냐와 함께 안데스 음악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악기로 팬파이프형의 모양이다.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티티카카 호수 주변 지역에서 비롯된 악기이다. 케냐보다 투박한 바람소리가 더 많이 들어 있어 안데스 음악 속의 여러 소리 가운데 특별한 매력을 전한다. 보통 7~8개에 이르는 여러 개의 관을 두 옆으로 겹쳐 만들고, 관의 머리를 붙여서 그 윗부분을 불어 연주한다. 지역과 음역, 생김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특히 저음역을 연주하는 긴 길이의 삼포냐는 겹쳐져 있는 한 쌍의 관 옆을 두 개로 나누어 두 사람이 한 음씩 번갈아 연주하는 호켓 방식으로 연주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황윤기, “서글픈 바람의 노래-안데스 음악”, 월드뮤직, 2013.)



## 저작권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0~41쪽
제재명	뮤직비디오 만들기	지도서	298~299쪽

### 1. 의미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 재산적 권리
- 문학, 영화 등의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 복제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 저작을 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등록과 같은 어떤 다른 절차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 2. 종류

- 저작 인격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은 할 수 없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 등)
  - 동일성 유지권: 영화의 내용과 제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자의 영화를 마음대로 재편집하여 배포하면 안 된다.)
  - 성명 표시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저작자가 영화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이를 공표하면 공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 저작 재산권: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배타적 이용권을 말한다. 재산권인 이상 양도 및 상속은 물론 채무 담보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 3. 저작권의 보호 기간

- 실명 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영상 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업무상 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공동 저작물: 제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 4. 저작 재산권의 제한(제23조~36조)

-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과 같이 공공 목적이 뚜렷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제3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 재산권에 대한 제한 사유
 

① 재판 절차에서 복제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④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⑨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⑩ 시험 문제로의 복제
⑪ 점자에 의한 복제	⑫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⑬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⑭ 일시적 복제
⑮ 공정 이용 번역 등에 이용 등	

## 우리나라 현악기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2~43쪽
제재명	현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300~301쪽

### 1. 가야금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가야금은 오동나무 판 위에 안죽을 세우고 명주실로 꼬아 만든 12줄을 엮는다. 왼손으로 줄을 누르거나 흔들고 오른손으로 뜯거나 통기면서 연주한다. 가야금의 종류에는 궁중 음악을 연주하는 정악 가야금, 민속악을 연주하는 산조 가야금, 창작 음악을 연주하는 25현 가야금 등이 있다. 제시된 사진은 산조 가야금이다.



### 2. 거문고

고구려의 재상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거문고는 오동나무 판 위에 여섯 줄을 명주실로 만들어 걸고 세 줄은 3개의 안죽 위에 얹어 놓고 술대로 밀거나 뜯어서 연주한다. 정악과 민속악을 한 악기로 연주한다.



### 3. 해금

당나라의 해 부족이 사용한 악기에서 유래되었다. 대나무로 만든 공명통 위에 명주실로 만든 두 줄을 원산 위에 고이고, 두 줄 사이에 말총 활대를 끼워 마찰해 소리 낸다. 정악과 민속악을 한 악기로 연주한다.



### 4. 아쟁

고려 때 들어온 당나라의 악기로 거문고보다 큰 몸통에 굵은 줄을 엮고,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에 송진을 바르고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낸다. 국악 합주 때 낮은 음역을 담당한다. 원래는 7현이었으나 음을 보강해 8, 9, 10현으로 만들기도 한다.



### 5. 양금

사다리꼴의 울림통 위에 가는 철사 네 줄이 한 벌을 이루고 있다. 총 열네 벌로 되어 있으며, 모두 열여덟 개의 음을 쓸 수 있다. 금속성의 가볍고 맑은 음색을 지니며, 음량이 작은 편이어서 세악 편성이나 단소와의 병주에 사용된다.



출처 국립국악원 > 국악사전

## 서양 현악기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2~43쪽
제재명	현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300~301쪽

### 1. 바이올린

‘Violin’이라는 명칭은 중세 라틴어 ‘Vitula’에서 왔다. ‘현악기’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게르만어로 ‘피들(fiddle)’이라는 뜻으로, 요즘에도 피들이라는 명칭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명과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맑고 밝은 음색을 지녔으며 현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며 독주나 합주에 널리 쓰인다.



### 2. 비올라

바이올린을 조금 크게 한 악기로 음색이 차분하여 합주에서 중간부의 가락을 연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역은 ‘가온 다’ 음을 중심으로 하므로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한다.



### 3. 첼로

바이올린보다 훨씬 크며, 낮고 힘찬 남성적인 소리가 난다. 첼로를 켤 때는 의자에 앉아서 악기를 무릎 사이에 세워서 끼우고 연주하며, 비올라보다 한 옥타브 낮게 줄을 맞춘다.



### 4. 더블베이스

현악기 종류 중에서 가장 큰 악기이다. 크기가 큰 만큼 현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음역을 맡고 있다.



### 5. 기타

이집트에서 유래된 기타는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애용하던 악기였다. 기타는 왼손과 오른손의 운지법이 현저하게 다른 현악기이면서도 건반 악기를 방불케 하는 ‘작은 오케스트라’로서의 연주 기능을 자랑하는 악기이다.



### 6. 하프

사냥할 때 쓰는 활의 줄을 튕긴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며, 악기 중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었다. 우아한 곡선과 아름다운 음색, 섬세한 표현을 특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46~47개의 현을 갖는다. 온음계로 되어 있는 현을 페달을 이용해 반음을 나타내며 C음은 붉은색, F음은 푸른색 현으로 음정을 구분한다.



출처 악기백과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2~43쪽
제재명	현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300~301쪽

### 1. 박종선류 아쟁 산조

아쟁 산조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피리, 해금 산조에 비해 뒤늦게 구성되었고, 출현 계기도 앞의 산조들과 차이가 있다. 산조는 19세기 후반 풍류방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독주 심방곡이 근대 도시의 독주곡으로 발달·확장한 것인데, 아쟁 산조는 이러한 문화사적 흐름과는 달리 만들어졌다. 애절한 감정의 농도가 짙게 표현되고 있어 매우 격정적이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 음악”, 국립민속박물관, 2017.

### 2. 거문고 독주곡 ‘달무리’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개방현을 다양하게 승화시켜 달의 신비로움을 1악장 ‘달빛’, 2악장 ‘달맞이’, 3악장 ‘달무리’의 세 악장으로 구성하였다. 1악장의 ‘달빛’은 그리움과 연민, 2악장의 ‘달맞이’는 달을 맞는 즐거움과 놀이 그리고 이 곡의 절정인 3악장의 ‘달무리’는 달무리의 환희와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출처 www.maniadb.com

### 3.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Francisco Tárrega - Recuerdos de la Alhambra)

이 곡은 스페인의 기타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1852~1909)가 1896년에 작곡한 작품이다. 알람브라 궁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스페인의 그라나다 지방에 있으며, 13세기에 건축되어 현재는 이슬람 건축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레가가 그라나다를 방문했을 때 알람브라 궁전을 보고 받은 감동을 기타로 옮긴 것으로 독특한 트레몰로 주법이 그 신비로움과 애절함을 더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박제성, “클래식 명곡 명연주”, 2010.)

### 4.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J.S.Bach - Unaccompanied Cello Suites No.1 Prelude, BWV 1007)

이 곡은 첼로 음색의 뛰어난 깊이 감에 착안한 바흐가 첼로를 위한 여섯 개의 모음곡을 만들어 발표한 곡 중 첫 번째 곡인 프렐류드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평균율 클라비어곡집’과 함께 바흐의 위대함을 드러낸 작품이다. 1889년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바르셀로나 고 악보 서점에서 이 모음곡의 악보를 발견한 후 훗날 전곡을 연주해 명곡의 반열에 올랐으며, 오늘날 수많은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첼로 독주의 대표곡이 되었다.

출처 매튜 라이 외 3인,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클래식 1001” 중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마로니에북스, 2009, 97쪽.